

##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가능성과 그 의의\*

김은일\*\*

— <차 례> —

1. 서론
2.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가능성
3.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원리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가능성을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원리와 수용사적 구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문록계 소설은 삼대록계 소설에 비해 그 유형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특히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은 양문록계 소설의 유형성을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줬다.

〈금향정기〉와 ‘종갈양문록’의 언급, 〈남강월〉과 ‘황경양문록’의 언급을 통해 양문록계 소설이 연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금향정기〉와 〈남강월〉은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에서 전편인 〈몽옥쌍봉연록〉이나 양문록계 소설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은 양문록계 소설이 그 존재기반이 탄탄한 유형임을 보여준다.

한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장편소설 위주의 전통세책점이 중단편소설 위주의 근대세책점으로 변모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층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세책가의 상업성과 결부된 전략적인 방편으로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을 활용하여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문록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416).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소설은 당대인들에게 연작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독자 및 개작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된 유연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양문록계 소설, 몽옥쌍봉연록, 광장양문록, 종갈양문록, 황경양문록

## 1. 서론

국문장편소설들의 경우 연작소설<sup>1)</sup>로 존재하거나 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품별 연작관계를 밝히거나 연작 작품 간의 유기성을 밝힌 연구<sup>2)</sup>들이 많은 편이다. 한편 국문장편소설 창작의 원리로서 연작을 파악하여 후손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장편화의 원리로 작용했다<sup>3)</sup>는 논의도 있었다. 국문장편소설 중 연작으로 창작된 대표적인 유형이 삼대록계 소설들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삼대록계 소

- 1) 대표적으로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과 같은 삼대록계 소설류, <천수석-화산선계록>, <임화정연-쌍성봉효록>, <보은기우록-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현씨양옹쌍린기-명주기봉-명주옥연기합록>, <옥원재합기연-옥원전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완월회맹연>의 경우에는 <양씨가록>이나 <맹성호연>, <정씨후록> 등이 있다고 작품 내에는 서술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실제로 후속편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연작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2) 연작논의와 관련해서 대체로 개별 작품별로 연작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목되어 있거나 연작간의 유기성을 밝히는 논의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 논의들을 다 기록하는 것도 불가하거나, 본고에서는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에 주목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몇 가지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광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길용, 「<몽옥쌍봉연록> 연작 연구」, 『국학연구론총』 2, 태민국학연구원, 2008.
- 3)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임치균(1996), 위의 책.

설은 거의 대부분 연작소설로, 전편은 <유효공선행록>, <성현공숙렬기>처럼 1세대의 남성 인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후편은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처럼 그 자손들의 여러 혼담들을 엮어 놓은 구성을 취한다. 이 때문에 삼대록계 소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종적으로 그 분량을 확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면 양문록계 소설은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을 제외하고 연작으로 존재하는 작품이 없다. 따라서 삼대록계 소설들의 연작원리를 논의하는 것과 달리, 양문록계 소설들은 연작원리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남강월><sup>4)</sup>과 <금향정기>의 말미에서 각각 “그 뒤일을 알고져 할진던 황경량 문록을 볼지어다”, “평북공 즈너 구남미의 즈서흔 설화는 종갈양현문록의 희비희기로 굿치노라.”라며 <황경양문록>과 <종갈양문록>에 대한 연작을 언급하고 있는 바, 양문록계 소설도 연작으로 존재했거나, 당대인들에게 연작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남강월>은 <징세비태록>을 개작한 소설이고, <금향정기>는 중국 소설 <금향정>을 번역한 작품인데, 전자는 구활자본으로 후자는 세책본으로 고소설 유통사의 말미에 상업적 의도로 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일대용녀남강월>과 <금향정기>로 개작을 하면서 굳이 결말에 ‘양문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작을 하면서 양문록을 언급했다는 것은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향유층의 기대지평<sup>5)</sup>이 존재

4) 본래 <일대용녀 남강월>이라 되어 있으나 <남강월> 혹은 <남강월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바 본고에서는 <남강월>로 쓰고자 한다.

5) 기대지평은 아우스의 독자 중심 비평에서 나온 말로 장도준은 “장르와 그것의 관례에 관해서 독서 대중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우스는 기대지평이 주는 문학 비평의 장점으로 “당시 독자가 어떻게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이해할 수 있었느냐의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꼽는다. 장도준, 독자반응이론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19, 한국어문연구학회, 2010, 228쪽; H.R. 아우스,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86, 192쪽.

했으며, 그 기대지평에 기대어 작품을 개작하거나 혹은 후속편을 기약하려 했던 필사자나 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인들의 연작에 대한 의식은 <옥수기>의 발문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남윤원은 <옥수기>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져 이 칩 하회로 불진디 가화왕딘 스가 후진의 소설을 이어 일우면 님화정연과 명행정의로 더부러 스양치 아니호을 듯”이라는 평을 했다. 이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관계를 인식하고 있던 남윤원이 <옥수기>의 후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당대 존재하던 연작소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6)</sup> 이런 맥락에서 <일대용녀 남강월>과 <금향정기>의 결말에 나타난 후속편에 대한 언급은 전편에 해당하는 작품들에 대한 흥미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후속편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후속편의 방향을 ‘양문록’으로 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구활자본이나 세책본은 상업적 의도와 떼어낼 수 없다. 구활자본 <남강월>과 세책본 <금향정기>는 원작이 아니라 개작된 작품인데, 개작을 하면서 원작에는 없던 ‘양문록’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 이는 양문록에 대한 당대인의 어떠한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작품에 나타난 ‘양문록’에 대한 언급은 당대 소설 향유층, 특히 양문록계 소설의 향유층들이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기대지평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기대지평에 기대어 작품을 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책본인 <금향정기>와 구활자본인 <남강월>에 쓰인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언급은 양문록계 소설의 기대지평을 활용하여 상업성을 확보하

6) 김종철, 『<옥수기>연구-작품구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9~20쪽.

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가능성을 통해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원리 파악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양문록계 소설의 수용사적 구도를 점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2.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 가능성

### 1) <금향정기>와 <종갈양문록>

<금향정기>는 남자 주인공 종경기와 여자 주인공의 갈명화의 혼인을 중심서사로 하는 중국 소설 <錦香亭>의 번안소설이다. <금향정기>는 세책본이나 방각본으로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7)</sup> <금향정기>가 세책본이나 방각본으로 유통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요인으로 중국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차용과 실존 인물을 인용하여 현실과 소설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여 흥미도를 높인 점과, 애정소설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sup>8)</sup> <금향정기>의 한국 번역본은 세책본과 경판본 계열

7) 조혜란은 <금향정기>가 <금향정>의 번안본임을 알렸으며, 유춘동은 <금향정>의 중국본이 28회본과 16회본이 있으며 한국의 <금향정기>는 중국의 <금향정> 16회본을 저본으로 번안된 작품임을 밝힌 바 있다.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의 계열에 대해서는 유춘동의 논의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기동과 신동익은 <왕교란백년장한>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금향정기>를 한국소설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혜란이 중국소설 <금향정> 28회본의 번역본임을 밝히면서 <금향정기>를 번역 번안소설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후 맹택영이 <금향정> 28회본의 출판시기를 근거로 <금향정> 28회본 저본설을 부정하였다. 그 때 임명옥이 <금향정> 16회본을 발견하여, 그것이 <금향정기>의 저본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유춘동은 <금향정> 16회본과 28회본, <금향정기> 필사본, 경판본, 세책본, 구활자본을 비교 대조하여 이본계열을 정리하였다.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쪽.

로 나뉘는 바, 세책본과 경판본의 번역 양상이나 서사변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판본이 장안에 대한 배경묘사로 시작하는 것에 비해, 세책본이 인물 소개로 시작하는 것, 경판본이 곽국부인과 종경기의 음사(淫事)를 축약한 것에 비해, 세책본에는 원전과 거의 유사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종갈양문록’에 대한 언급 및 결말처리 방식의 차이점에는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종갈양문록’에 대한 언급은 세책본 계열 중에서도 서울대 소장본과 동양문고 소장본<sup>10)</sup>에서 나타난다. 이외에는 ‘종갈양문록’에 대한 다른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실존하지 않으며 기록이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종갈양문록이 당대에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sup>11)</sup> 하지만 실제 존재 여부와 별개로, 종갈양문록에 대한 언급은 경판본에 나타나지 않는 세책본에서의 개작의식을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경판본이나 규장각 세책본 모두 갈소저의 둘째 아들로 갈씨의 가문을 잇게 하고, 뇌소저의 아들로 뇌씨 가문을 잇게 하고, 위씨 아들로

8) 유춘동은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사실의 형상화나, 실존 인물의 인용은 상호텍스트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는 어떤 관계든 맺는다는 롤랑바르트 및 조너선 칼러, 크리스테마 등의 이론으로 고소설 속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그에 따른 흥미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유춘동, 『세책본 <금향정기>의 특성 연구-원전, 경판본과 비교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세책 고소설 연구』, 2003, 309~315쪽;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9) 유춘동(2003), 같은 글, 309~315쪽.

10) 서울대 소장본은 약현 세책본이며, 동양문고 소장본은 향목동 세책본이다.

11) <완월회맹연>의 경우 <양씨가록>, <맹성호연>, <쌍문쌍성총행록>, <장씨별록>, <정씨후록>, <정씨효행록> 등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나오고 있으나 후속편으로 창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종갈양문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씨 가문의 잊게 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경판본에서는 “기후 즈손 등 설화는 기록지 못호노라”로 끝맺고 있는 반면, 서울대 규장각 세책본에서는 “평북공 즈녀 구남매의 즈서흔 설화는 종갈양현문록의 히비히기로 곳 치노라”<sup>12)</sup>로 끝난다. 둘 다 고소설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결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세책본에서 ‘종갈양문록’을 언급하면서 더욱 구체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판본은 자손의 설화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으나 그 실체를 밝히지 않은 반면, 세책본은 그 자손의 설화가 있는 작품의 명을 말하면서 구체성을 갖게 된다.

세책본은 주지하다시피 상업성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후속편인 ‘종갈양문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갈양문록’을 써넣음으로써 얻으려 했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세책본 <금향정기>를 읽고 후속편인 ‘종갈양문록’에 대한 기대를 했을 수 있다. 더구나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독서 경험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금향정기>의 후속편의 서사에 대한 일종의 기대심리가 있었을 것이며, 후속편도 기다렸을 수 있다.

## 2) <남강월>과 <황경양문록>

<남강월>은 <징세비태록><sup>13)</sup>을 개작한 구활자본 소설<sup>14)</sup>이다. 황원상과 그의 아들 황국경이 정적(政敵) 화신과 대립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

12) 동양문고본은 “평북공 자녀 구남매의 히비흔 설화는 종갈양문록의 기록호엿기로 그만 곳치노라”로 되어 있다.

13) <징세비태록>의 이본은 필사본, 방각본(경판본), 구활자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필사본 중 낙선재본은 방각본과 거의 일치한다. 최근 박선란이 <징세비태록>의 구성 기법과 의식을 연구하면서 이본을 검토하고 정리한 바 있다. 그는 <일대용녀남강월>은 방각본을 저본으로 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징세비태록> 이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박선란, 「<징세비태록>의 구성 기법과 의식 연구-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4) 덕흥서림에서 1915년에 발행한 바 있다.

여 가문을 번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량은 짧지만 황국경과 경소저의 혼사장애담이나 두여화의 정절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이 삽입되어 있어 서사는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남강월>은 제목에서부터 여성인물을 서사의 중심으로 보고 개작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개작 양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가) 대저조화옹이사람세상에넉의 비록남녀에 분별은잇스나 그의기와 용뎡과 지조와 지조난 차등이업느니 이리흠으로 공손디랑과 흥선에 검무이며 목관과 순관의 전공이며 죽비절부와 왕덕부에 의렬은 천고에 유명하니 뉘아니 흠탄하며 근디스격으로 의론할진던 이남강월에 검술로 디공를 일음과화경옥에지혜와 정렬이며 두여화에 절행과 언스는 진실로괴이하고 희한한고로 성서벽등에그형적을 디강기록하야 차세에 전파하노니 보시는니는 심상한 소설로역이지아니 하심를두터이브라노라 <일대용녀남강월>
- (나) 인종이이말를듯고영숙낭지라츠훈고그못가에스당을세워스시로치제케하고쑤여화에말슴를듯고아름다히역이여숙절좌부인을봉호곳도충용군부인에공를싱가하야무창티부인을봉호니라차후로황씨에일문에부귀환혁하고조손이창성하니그뒤일을알고저할진던황경량문록를볼지어다 <일대용녀남강월>
- (다) 그후안디후는승상이되고업시와경시의아들은십칠에등과하야한님혹신되고두시는일즈를두고화시는이즈를두니라가경스년에턴지이스격으로징세비태록을지어턴하에반포하다 <징세비태록>

(가)는 <남강월>에 붙어 있는 서언이며, (나)와 (다)는 각각 <남강월>과 <징세비태록>의 결말이다. 물론 <징세비태록>과 <남강월>의 전체적인 서사전개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 (나), (다)와 같은 서술들이 부연되면서 <남강월>의 개작의도가 부각된다. 서언에서 말하듯 <남

강월>은 남강월을 비롯하여 화경옥, 두여화 등 각 에피소드의 중심인물들을 모두 아우른다. 또한 결말에 가서도 그 인물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기록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징세비태록>의 결말이 ‘누구의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과 달리, <남강월>은 여성 인물들의 활약상에 집중한다.

한편 <일대용녀남강월>에서는 <징세비태록>의 다른 이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황경양문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서울대 규장각본 <금향정기>에서와 유사한 양상으로, 후속작인 ‘황경양문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황경양문록’은 ‘종갈양문록’과 달리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서지』<sup>15)</sup>는 모리스 꾸랑이 수집한 한국 서적 목록을 1894년~1896년에 걸쳐 정리한 도서목록집으로, 이 책에 실려 있는 소설은 1894년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931번 목록에 ‘황경기대록’<sup>16)</sup>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바, ‘황경기대록’은 ‘황경니대록’의 오독이었을 확률이 높다. 자형(字形)에 따라 ‘니’자가 ‘시’나 ‘기’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며, 『한국서지』에서 <유이양문록>의 제명인 ‘뉴니양문록’을 ‘뉴시양문록’으로 오독하여 기록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희웅의 『고소설 줄거리집성』<sup>17)</sup>에서도 ‘황경기대록’이 ‘황경이대록’의 오기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는 더불어 황경기대록(황경이대록)이 미발굴 <황경양문록>의 이본일 것으로 표시하면서 <황경양문록>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

18~19세기에 0대록이나 양문록 등의 제목을 가진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문록과 0대록이 혼용되어 쓰인 바도 많다. 대체로 0대록의 경우에

15) 모리스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472쪽.

16) 황경기대록 역시 그 실체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

17)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1』, 집문당, 2002, 1734쪽.

는 한 성씨, 즉 남성 주인공 가문의 성씨 하나만을 표제에 내세운다. 그에 비해 <황경기디록>은 ‘황과 경’이라는 두 가지 성씨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물론 양문록과 0대록을 결합한 형태로의 ‘황경이대록’을 상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남강월>의 결말에 <황경양문록>이라는 표제가 보이는 바, ‘황경이대록’보다 ‘황경양문록’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 나타난 ‘황경기디록’은 ‘황경양문록’과 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당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원리

#### 1)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

양문록계 소설<sup>18)</sup>은 삼대록계 소설과 달리 연작으로 창작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래서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은 오히려 양문록계 소설의 유형성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sup>19)</sup> 그러나 양문록계 소설

18) 현존하는 양문록계 소설은 총 7편으로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을 포함하여 <유이양문록>,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김이양문록>, <이조양문록>, <최호양문록>이 있다.

19) 양문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 중, <김이양문록>, <이조양문록>, <최호양문록>은 1,2권 이내의 짧은 분량의 소설인 반면 <유이양문록>, <하진양문록>, <곽장양문록>, <부장양문록>은 5권이 넘는 장편인가하면, <유이양문록>이나 <곽장양문록>은 가문소설적 성격을, <하진양문록>이나 <부장양문록>은 여성영웅소설적 성격을 지닌 까닭에 제목에 ‘양문록’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양문록계 소설이라는 유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분량이나 고소설의 하위유형과는 별개로, ‘양문록’이라는 제명의 공통성, 주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전반부(혹은 전편)에는 친정가문에서의 서사를, 후반부(혹은 후편)에는 시댁가문에서의 서사를 다룬다는 서사구조상의 동일성이 발견된 바 양문록계 소설의 유형성이 어느 정도

의 서사구조가 일정한 유형성을 지니는 바,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은 <몽옥쌍봉연록>이 다른 양문록계 소설의 전반부 서사에 대응하며, <곽장양문록>이 다른 양문록계 소설의 후반부 서사에 대응한다.

주지하다시피 양문록계 소설들은 삼대록계 소설처럼 ‘한 가문’을 설정하고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물이 존재 기반을 뒀던 가문(친정가문)에서의 서사와 여성인물이 시집간 새로운 가문(시댁가문)에서의 서사를 혼사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때 친정가문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는 반드시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에서 <몽옥쌍봉연록>은 후반부에 등장하는 장광염의 아버지인 장홍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후편인 <곽장양문록>은 장광염과 곽선경의 혼사담, 장혜와 곽현요의 혼사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곽선경의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장광염이 곽문의 위기를 해결하고 처처갈등을 해결하며 시댁 가문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그밖에 곽장 양문 자녀들의 혼사담을 담은 소설이다. <유이양문록>에서도 전반부는 유필염보다는 유진의 영웅적 활약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물론 <하진양문록>처럼 여성 주인공 개인의 위기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남성인물의 활약상이든, 여성인물의 활약상이든 양문록계 소설에서 전반부는 여성인물이 혼인을 하기 전에 겪은 ‘친정가문’의 위기와 그 위기의 극복을 통한 가문의 재건이 주된 서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가(兩家) 혹은 양문(兩門)에 대한 인식이 여성적인 것<sup>20)</sup>임은 이미

---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0) 김은일(2016), 같은 글, 223~224쪽.

논의된 바 있다. 이는 <이정양가록>이라 명명된 가사작품을 통해서 구체화 되었는데, <이정양가록>은 용인 이씨가 자신의 생애 중 주요한 에피소드를 진술하는 방식을 취한 규방가사이다.<sup>21)</sup> <이정양가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용인 이씨가 혼인 하기 전 친정에서의 상황을 서술하고, 두 번째 부분은 혼례날 당일을 서술하며, 세 번째 부분은 혼인 후 남편과의 갈등을 서술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용인 이씨는 주로 ‘오빠’에 대해 서술하면서 친정 가문의 뛰어난 점을 묘사한다. 이는 양문록계 소설의 전반부에서 여성 인물 본인의 서사가 아닌 친정의 뛰어난 행적을 서사화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이정양가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19세기 여성들의 자기생애서술<sup>22)</sup>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기록><sup>23)</sup>에서도 유사한 서사구조가 발견된다. 홍인숙은 <자기록>의 서술단락을 “서문-친정-시집-마무리-후기”<sup>24)</sup>로 분석한 바 있는데,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친정-시집’이라 볼 수 있다. 시간 순에 따라 기술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혼인하기 전과 혼인한 후의 사건에 대해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정양가록>이나, 양문록계 소설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정양가록>이나 <자기록>은 실제적 글쓰기라면 양문록계 소설은 여성의 삶의 허구적 표

21)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431쪽; 김은일(2016), 같은 글, 221~223쪽.

22)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8쪽; 박애경,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기능에 대하여-〈이정양가록〉과 <소수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243쪽.

23) <자기록>은 풍양조씨(1772~1815)가 기록한 산문으로 남성에 의해 기록된 여성의 모습이 아닌, 여성이 주체적으로 글을 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 나의 시간, 2014.

24)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47쪽.

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양문록계 소설들은 대체로 당대 여성들이 인식했던 여성들의 삶의 궤적, 즉 여성의 삶의 구조와 닮아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편(전반부)	후편(후반부)	비고
삼대록계 소설	<유효공-유씨> 연작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여성들의 실제 삶		친정을 기반으로 하는 삶	시덕을 기반으로 하는 삶	
연작으로 존재하는 양문록계 소설	<몽옥-곽장> 연작	<몽옥쌍봉연록>	<곽장양문록>	
	<금향정기>	<금향정기>	<종갈양문록>	
	<남강월전>	<남강월전>	<황경양문록>	
양문록계 소설	<유이양문록>	'유진' 가문의 위기	'유필염'과 '이연기'의 혼사담 그 자녀들의 혼사담	
	<하진양문록>	'하옥주' 가문의 위기	'하옥주'와 '진세백'의 혼사담	
	<부장양문록>	'장벽계' 가문의 위기	'장벽계'와 '부계'의 혼사담 '부월혜'와 '장원홍'의 혼사담	
	<김이양문록>	'이소애'의 위기	'이소애'와 '김태을'의 혼사담	
	<이조양문록>	'이금선' 가문의 위기 '조추연'의 위기	'이금선'과 '조추연'의 혼사담	
	<최효양문록>	'호월영' 가문의 위기	'호월영'과 '최희성'의 혼사담	

삼대록계 소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처럼 대개의 삼대록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두 가문의 서사를 병치한 구조가 아니다. '유씨' 혹은 '임씨' 등으로 표상되는 그 집안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른 가문들과 혼인을 하는 과정들이 담겨 있지 양문록계 소설처럼 여성인물을 기준으로 본인의 친정에서 본인의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의 서사라 할 수 없다.

<금향정기>와 <남강월>은 <몽옥쌍봉연록>처럼, 양문록계 소설의 전반부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문록계 소설들은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의 구조처럼, <유이양문록>의 경우 전반부인 '유진전'과 후

반부인 ‘유이양문록’의 결합으로, <하진양문록>의 경우 ‘하옥주전’과 ‘하진양문록’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양문록계 소설이 실제 연작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연작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이 소설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한문소설인 심능숙의 <옥수기>를 남윤원이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쓴 발문에는 “디저 이 칙 하회로 불진디 가화왕딘 스가 후진의 소설을 이어 일우면 님화정연과 명행정의로 더부러 스양치 아니호을 듯”이라는 평이 있다. 이는 남윤원이 <옥수기>의 후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5)</sup> 이때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은 ‘위씨’를 중심으로 위지덕과 위연청의 부자갈등을 전편(前篇)으로 하고, 위연청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후편으로 하는 연작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연작 유형과 닮아 있다.

반면,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은 “혼인을 기점으로 한 전·후반부의 분리와 전반부에서의 임규 중심의 서사”<sup>26)</sup>와 후반부에서 진행되는 여성인물들의 고난담을 근거로 양문록 계열로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sup>27)</sup>들이 <임화정연-쌍성봉효록>의 단일하지 않은 구조를 쟁점으로 삼은 바 있는데 이는 서사의 중심축을 어느 한 가문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삼대록계 소설’과 양상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

25) 김종철(1985), 앞의 글, 19~20쪽.

26)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38~140쪽.

27) 송성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엄기주, 「<임화정연>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16, 국어국문학회, 1996.

이다. <임화정연>은 전반부에서는 임규, 후반부에서는 정연경을 중심인 물로 서사를 견인하면서 그 후반부는 다시 후편으로 이어져 <쌍성봉효록>에서 임규와 정연경 자녀들의 혼사담을 나열하는 것들은 <임화정연-쌍성봉효록> 연작을 '임정양문록'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준다. 이처럼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은 양문록이라는 제명이 있지 않아도 양문록계 소설의 유형으로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은 양문록계 소설이 오늘날의 이해와는 달리 당대에 일정한 소설 갈래로서 그 존재기반이 상당하였음을 반증하는 양상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는 국문장편소설의 연작의 원리가 크게 삼대륙계와 양문록계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8)</sup>

## 2)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과 상업적 원리

양문록계 소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창작된 작품군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말까지 그 창작연대를 소급할 수 있는 <곽장양문록>부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향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김이양문록>, <이조양문록>, <최호양문록>까지 장편으로 혹은 단편으로 두 세기에 걸쳐 존재해왔다. 양문록계 소설 중 가장 긴 <유이양문록>은 77권에 달하고 <김이양문록>, <최호양문록>은 1권에 불과하다. 양문록계 소설이 '양문록'이라는 제명과 일정한 서사구조 아래 그 분량이 장편에서 단편으로 줄어드는 추이는 19세기 장편소설의 쇠퇴과정과도 닮아 있다. 그런데 장편소설의 쇠퇴과정은 전통세책점에서 근대세책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기반으로 이해된다.

정병설은 19세기 이후 세책점이 전통세책에서 근대세책으로 변화했음

28) 물론 양문록계 소설의 경우 국문장편소설의 자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을 밝힌 바 있다.<sup>29)</sup> 그는 세책점의 성격 변화는 대출소설의 성격 변화와 독자층의 변화를 야기했고, “여성 독자들이 장편소설로부터 이탈하면서 전통적인 세책업이 위축되었고, 활자본 소설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관심이 일반 서민 계층에서 커지면서 그에 맞추어 주로 단편을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책집이 나타났다”<sup>30)</sup>고 보고 있다.

세책본 <금향정기>나 구활자본 <남강월>은 장편에서 단편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존재했던 작품들이다. 중단편에 해당하는 이 소설들이 주로 장편소설로 존재했던 양문록계 소설과 연관성을 지으려 했다는 것은 “주로 필사본 장편소설을 취급하던 세책집이 활자본과 중단편 소설을 취급하는 소규모 점포로 바뀌어 가는”<sup>31)</sup>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점포가 새롭게 확보된 중단편 세책본 독자에게는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면서, 이전의 장편세책소설 독자도 끌어들이기 위해 양문록계 고소설과의 연관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초에 보이는 양문록계 소설은 <월영낭자전>처럼 구활자본으로 개작되어 존재하기도 하고 <하진양문록>처럼 딱지본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새롭게 쓰이거나 개작된 후속 편에 대한 언급으로 독자층의 확보에 활용되기도 한다. ‘양문록’은 고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상업적 요구와 부합하여 시대에 맞게 활용되었던 유연한 유형이라 하겠다. 양문록의 서사구조가 여성인물의 친정 가문의 서사로 접철된 전반부와 시대 적응기의 서사로 이뤄진 후반부의 결합으로 이뤄진 유형성을 지니는 까닭에 분량에 구애 받지 않으며, 후속편을

29)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99~215쪽.

30) 정병설(2016), 같은 책, 213쪽.

31) 정병설(2016), 같은 책, 215쪽.

언급하거나 창작하기에 ‘혈연’으로 유기성을 지녀야하는 삼대록보다는 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정리하자면, 양문록계 소설은 삼대록계 소설에 비해 18세기부터 그 양식의 내적 변신을 피하면서 20세기까지도 꾸준히 창작되었으며, 다른 소설들의 개작이나 창작에도 영향을 끼친 개방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삼대록계 소설이 종적 확대를 통해 장편화한 소설이라면, 양문록계 소설은 횡적 확대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아래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연구는 삼대록계 소설에 비해 소략한 편이었다. 이는 양문록계 소설의 존재양상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양문록계 소설도 연작이라는 유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의 존재가능성을 통해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세책본 <금향정기>와 구활자본 <남강월>은 각각 <금향정>과 <징세비태록>의 개작으로 알려져 있다. <금향정기>는 ‘종갈양문록’이 <남강월>은 ‘황경양문록’이 후속편으로 있다는 서술로 서사를 마무리한다. 개작을 하면서 굳이 ‘양문록’을 언급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개작을 하면서 양문록을 언급했다는 것은 ‘양문록계 소설’에 대한 향유층의 기대지평이 존재했으며, 그 기대지평에 기대어 작품을 개작했거나 후속편을 기약하려 했다는 개작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은 현존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존재가능성을 통해 양문록계 소설의 연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문록계 소설 중

현존하는 유일한 연작은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이다. 그러나 ‘종갈양문록’과 ‘황경양문록’이 후속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이 양문록계 소설 중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는 친정기문의 서사로 이뤄진 전반부와 시대기문의 서사로 이뤄진 후반부가 혼인을 중심으로 결합된 형태인데 <몽옥쌍봉연록>이나 <남강월>, <금향정>은 친정기문의 서사로 이루어진 전반부 서사에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양문록계 소설이 비록 연작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서사구조적으로 ‘하옥주전+하진양문록’, ‘유진전+유이양문록’과 같은 구조로서 연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양문록계 소설이 지니는 연작성은 양문록계 소설의 존재기반이 제법 탄탄했던 것을 증명한다. 이는 양문록계 소설이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의 연작의 원리가 크게 삼대록계와 양문록계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문록계 소설은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긴 시간 창작 향유된 유형으로 장편에서 단편까지 그 분량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지니기도 하며, 애정소설, 여성영웅소설, 가문소설, 가정소설 등의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은 양문록계 소설이 지니는 서사구조 아래, 양문록계 소설이 시대의 추이에 맞춰 단편화하거나, 다른 단편 작품들의 개작이나 창작에도 영향을 끼치며 적극적으로 대중화 및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장편소설 위주의 전통세책점이 중단편소설 위주의 근대세책점으로 변모하는 시기였다. 이는 독자층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양문록계 소설은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영

역을 유지하면서 활용되고 그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말해 <금향정기>와 <남강월>에 양문록계 소설을 언급은 ‘양문록’에 대한 기대지평을 지녔던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특히 양문록계 소설 및 그를 위시한 장편소설에 익숙했던 기왕의 여성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다.

즉, 양문록계 소설은 당대에 일정한 소설의 하위유형으로 이해되면서 그 존재기반이 상당하였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시대적 추이에 맞춰 변화한 유연한 장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은일,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3~202쪽.
-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17~239쪽.
-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7쪽.
- 김종철, 「<옥수기>연구-작품구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149쪽.
-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군담소설의 변모 양상: <남강월>과 <김진옥전>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4, 연민학회, 1996, 345~363쪽.
-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1~176쪽.
- 모리스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1~922쪽.
- 박선란, 「<징세비태록>의 구성 기법과 의식 연구-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0쪽.
- 박애경, 「장편가사 <이정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고전여성문학회, 2003, 421~446쪽.
- 박애경,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기능에 대하여-<이정양가록>과 <소수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229~253쪽.
-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3~349쪽.
-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269~288쪽.
- 송성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349~387쪽.
- 엄기주, 「<임화정연>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16, 국어국문학회, 1996, 205~225쪽.
-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9쪽.
- 유춘동, 「세책본 <금향정기>의 특성 연구-원전, 경판본과 비교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세책 고소설 연구』, 2003, 1~400쪽.

-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1~139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52쪽.
- 장도준, 「독자반응이론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19, 한국어문연구학회, 2010, 207~245쪽.
-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332쪽.
- 조혜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93쪽.
- 조희용,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1』, 집문당, 2002, 1~756쪽.
-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109쪽.
- 최길용, 「<몽옥쌍봉연록> 연작 연구」, 『국학연구론총』 2, 태민국학연구원, 2008, 66~109쪽.
-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28쪽.
-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 나의 시간, 2014, 1~279쪽.
-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41~272쪽.
- H.R. 야우스,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86, 1~340쪽.

ABSTRACT

The possibility of Existence and Its Meaning of  
*JongGalYangmunrok* and *HwangGyeongYangmunrok*

Kim, Eun-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series of Yanmunrok novel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rough the possibility of *JongGalYangmunrok* and *HwangGyeongYangmunrok*. Yangmunrok novels have a tangible feature that the narrative of the first half and the narrative of the latter are combined based on marriage story. *Geumhyangjeonggi* and *Namgangweol* correspond to the first half of the Yangmunrok narrative. I confirmed the seriality through this. The seriality of Yangmunrok novels shows that the basis of its existence is solid.

On the other han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is time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storybooks focused on the novels into the modernist booksellers focused on the novels. This means changes in the readership. Booksellers tried to capture readers by utilizing the seriality of Yangmunrok novels.

**Key Words** Yangmunrok novel, Mongokssangbongyeonrok, GwakJangYangmunrok, JongGalYangmunrok, HwangGyeongYangmunrok

논문투고일 : 2019.03.31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